한푼이라도 더…저금리시대 '짠테크' 뜬다

하나은행, 연 5% 특판 적금…3일 간 136만명·4조원 모여
광주은행, 6%대 여행 적금 2만명 돌파 등 높은 금리 인기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내세운 적금 상품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하나은행이 '5.01%' 금리를 내세운 특판 적금에는 사흘 새 136만여 명이 가입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가중평균금리(3~4년제·신규 취급액 기준)는 1.98%로, 지난해 9월(2.06%)을 끝으로 3개월 연속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연 2.0%도 받기 힘든 초저금리 시기에 연 5%대를 내세운 한정판 적금에는 140만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기존 KEB하나은행에서 사명 변경을 기념해 내놓은 '하나 더 적금'에는 3~5일 사흘 간 136만7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 금액은 3788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이 그동안 선보여온 적금 상품(1년제 기준)을 보면 '급여하나월복리적금'이 연 4.1%로 금리가 가장 높았고, '하나 1Q 적금'(연3.60%), '도전 365 적금'(연 3.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최대 연 5.01%의 이자에 1년짜리 상품으로 월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금리 연 3.56%에 온라인 채널 가입(연 0.2%)과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자동이체 등록(연 1.25%)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최고 연 5.01%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대한도로 넣으면 1년에 이자 약 8만6000원을 받는다.

8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에 고객이 몰려들었고, 출시 첫날부터 하나은행의 공식 앱 '하나원큐'는 접속 대기자만 5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첫날 가입자는 20만명에 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 일부를 손님들께 돌려드림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출발한 상품"이라며 "현재로서는 판매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지만 다양한 사업모델과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은행이 내놓은 최고 연 6% 적금상품에는 지난 달 말까지 2만2000여명이 몰려들었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6월24일 선보인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에는 2만2843명이 가입했다. 가입 금액은 438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적금은 여행마니아들을 위한 여행테마 상품으로 제주항공 발권액 및 광주카드 해외이용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 정액적립액 5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원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8%에 제주항공 발권액 금액 등을 합산해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쥐띠 해'를 맞아 지난 달 출시한 '2020 해뜨쥐적금'으로는 한 달 새 7520개(가입 금액 11억9400만원) 계좌가 개설됐다.

기본금리는 연 1.3%이지만, 쥐띠이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고 연 3.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천 코드를 공유한 계좌 수에 따라 연 0.2%~ 0.8%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하면서 '노력형 우대 적금'으로 고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추천 이벤트 참가자 가운데 주민등록상 '쥐띠 해' 출생자는 해당 우대금리의 2배인 연 1.6%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년 이내 5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만 19세 이하 자녀를 위한 '테트리스 적금'과 여성 소비자 전용상품인 '레이디4U 적금' 등 이색상품을 내놓았다.

만 1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테트리스 적금'은 최고 1%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월 40만원까지 수시로 입금·인출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최장 6년으로, 자녀의 입학·졸업 등 여러 목적에 맞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서점·편의점에서의 체크카드 사용금액과 자동이체 실적, 형제·자매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협 '레이디4U적금'은 만 20세~39세 여성이 가입 대상이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동안 매월 100만원까지 수시 납입할 수 있다. 이 적금은 화장품·카페·온라인 쇼핑몰 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모바일 앱·인터넷 예·적금 가입실적 등 7가지 우대 조건에 따라 최고 1%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등록금 내고 장학금 받으세요"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대학등록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이벤트를 연다.

6일 광주은행은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0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에게는 200만원, 2등(1명)은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준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으로 하면 된다. 대학(원)생 총 402명에게 장학금과 커피 상품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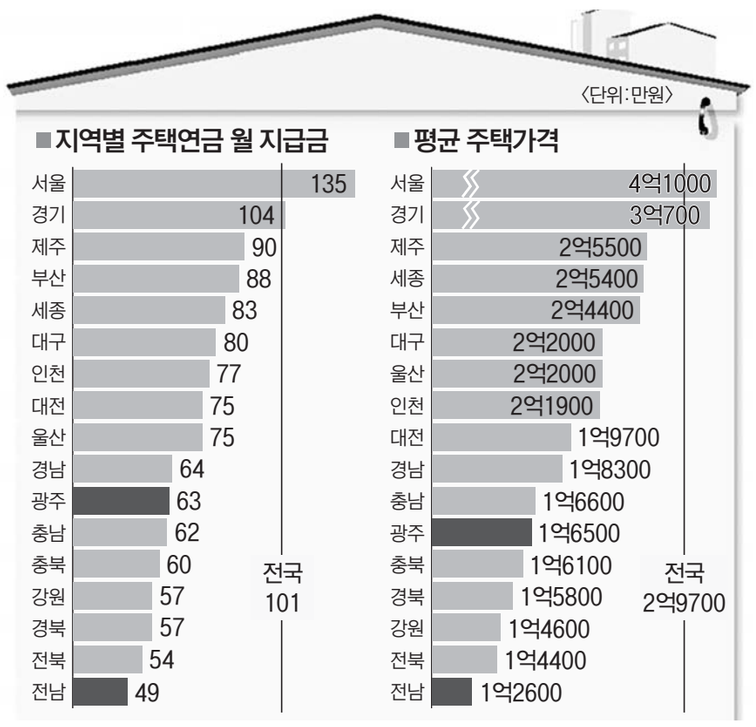
추첨 결과는 오는 4월에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미래 재원인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2020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주택연금 지급금 월 49만원…전국 최하

전국 평균 101만원 절반도 안돼…광주도 63만원 하위권
광주·전남 가입자 22%↑…비중은 광주1.9%·전남0.8%



전남지역 주택연금 평균 지급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년에 비해 22%(352명) 늘었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 1372명·전남 580명 등 195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가입자는 전년 1600명(광주 1125명·전남 475명) 보다 22%(광주 21.9%·전남 22.1%)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982명으로, 총 누적 가입자가 7만1034명으로 늘었다. 전년에 비해서는 18.2% 증가했다.

지역 가입자 비중은 광주 1.9%, 전남 0.8%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하위권을 전전했다. 특히 전남 월 지급금은 4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서울이 1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4만), 제주(90만), 부산(88만), 세종(83만), 대구(80만), 인천(77만), 대전·울산(75만), 경남(64만)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 지급금은 63만원으로 전국 평균 월 지급금 101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로 광주·전남은 그보다 2년 뒤늦은 74세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대로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지급방식과 집값, 나이 같은 조건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전남지역은 평균 주택가격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 평균 주택가격은 1억2600만원으로, 전국 평균(2억9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주택가격은 서울이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700만), 제주(2억5500만), 세종(2억5400만), 부산(2억4400만), 대구·울산(2억2000만), 인천(2억1900만), 대전(1억9700만), 경남(1억8300만), 충남(1억6600만) 등이 뒤를 따랐다. 광주 평균 주택가격은 1억6500만원으로 전국 12번째를 차지했다.

연금 지급방식별로 보면 광주는 종신지급이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우대지급(18.0%), 종신혼합(16.3%), 우대혼합(3.3%)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 역시 종신지급이 48.8%로 가장 많이 택했고 우대지급(30.5%), 종신혼합(12.6%), 우대혼합(5.0%)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14개 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

전남지역 14개 농협이 '2019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상을 받았다.

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가 평가하는 '2019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나주 남평농협 등 전남 14개 농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주 남평농협(조합장 최공섭)은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 장흥 용두농협(조합장 백찬인), 우수상에는 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 영암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 장려상에는 순천농협, 목포농협, 장성 황룡농협, 보성 득량농협, 해남 현산농협, 고흥 풍양농협, 장성 백양사농협, 장성축협, 광양원예농협이 각각 선정됐다.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재무상태와 수익개선도, 고객서비스, 보험, 카드, 영업능력향상, 핵심인재 육성 등 32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최고의 시상제도로 꼽힌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전남지역 농협들의 수상은 고객밀착형 상호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민과 함께 더 성장하는 전남농협 구현을 위해 상호금융 사업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하나은행 11개 지점서 신용보증 신청 가능

광주지역 하나은행 11개 지점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신보는 지난 4일 하나은행과 '보증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광주신보의 신용보증 상담 및 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신용보증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 했다는 것이 신보 측 취지다.

광주지역 소상공인은 광주신보 상담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청과 서류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SM그룹에서 역량있는 분을 모십니다.

●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구분			인원	담당 업무 및 자격요건	근무지
임원 (본사)	건설업무총괄 (개발사업 및 부동산 관련 업무 포함)	경력	○명	- 건설사업 전반을 리드하면서 사업수주 및 인허가 업무추진이 가능하신 분 (주택 건축, 공공사업 유경력자) - 건설업 리스크관리와 사업분석 및 원가 관리가 가능하신 분 - 2, 3군 건설회사 본부장 출신 우대	광주

●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2차 :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3차 : 레퍼런스체크 (대상자 개별동의후 진행)
4) 4차 : 대표이사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지)

●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개별양식)
※ 최종 직위 및 연봉 기재
2) 자기소개서(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접수기간 및 방법
1) 서류접수 : 2020년 1월 31일 ~ 2월 7일(금요일)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sam26486@hanmail.net)
3)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1(궁동) 3층 (주)삼라
4) 문 의 처 : (☎. 062-233-7733 / 기획총괄부)

●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SM|주| 삼 라